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지니는 태도 및 다문화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27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연령별 태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집속의 효과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태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와 한민족 정체성이 산출된 반면,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현실갈등인식과 차별감, 연민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차별감이,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집단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는 대상마다, 그리고 태도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태도의 차원이 일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임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현실갈등, 차별감, 한민족정체성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3571).

† 교신저자: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기초연구실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Tel: 044-415-2117, E-mail: yangkm68@hanmail.net

한국사회에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인주민의 수는 약 157만 명으로 이는 한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3.1%에 해당되는 비율이며 2013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물론 한국사회에 외국출신의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1980년대 초반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실행된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등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이 활성화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요 다문화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양계민, 2015).

한편, 또 다른 종류의 이주자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남한에 입국하기 시작하여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해진 1990년대 중반부터 입국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꾸준한 입국이 이루어진 결과, 2014년 6월 현재 26,85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통일부, 2014; 양계민, 2015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의 기준에서 보면 다문화집단이라고 구분하기에 자연스럽지 않으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를 하였고 남북한이 분단 이후 장기간 서로 다른 근대화 경험의 경험을 겪었으며, 남북 상호간 교류가 전혀 없었고, 남한에 입국한 후 언어, 사상, 생활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경험하면서 문화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공통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는 점에서 완전히 다문화집단이라고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문화에서 온 여타의 다문화집단 구성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점을 지니게 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른 다문화집단과는 별도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내의 다른 다문화집단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지원을 받는 등 특수한 위치를 누리고 있다(윤인진, 2004).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러한 지원을 하는 근거는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식과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 때문인데,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이 존재하고 그 중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될 때 소수 집단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대는 다른 소수집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는 ‘같은 민족’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아니라는 주장이 야기되어 자칫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명칭을 남북하나재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명칭을 바꾸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여 남북하나재단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남한정부의 지원 축소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진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집단이 제한된 자원(사회적·정책적 지원)을 놓고 상호간 경쟁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소수집단 집단간에도 적개심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있다(Sherif, 1966). 물론 국내 소수집단간 갈등의 문제는 현재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없고,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이 하나의 소수집단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규모의 집단으로 형성되어있는

다민족국가가 아니기에 당장에 나타날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다문화집단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고(이종두, 백미현, 2014), 통일 독일의 동독출신 주민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가치체계에 대한 부적응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와(박영정 외, 2011), 동독출신 주민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자신의 무능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공격행동을 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기식, 2008)을 살펴보면, 미래 한국사회에서도 북한출신자들과 다문화집단간의 갈등 문제는 충분히 발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소수집단관련 태도 연구는 주로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즉, 소수집단이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김혜숙, 2000; 김혜숙 외, 2003; 김혜숙, 2007; 김혜숙 외, 2011; 양계민, 2009; 양계민, 2010; 양계민, 정진경, 2005; 윤인진, 2003; 이수정, 양계민, 2013; 임성택, 2003). 이는 아마도 소수집단이 한국사회에서 적응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수집단의 수용적 태도가 중요하며, 역사적으로도 집단갈등의 문제는 주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간에 나타난 문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집단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일 경우 상호간 갈등이 유발된 사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라틴계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시내의 주거지와 일자리를 놓고 저소득층의 흑인과 라틴계 이주민들이 서로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고(Baker & Binham, 1991), 그 결과 미국에서 소수집단이었던 흑인집단이 새로운 소수집단인 라틴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다(Zúrate, 2009).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공격적 행동으로 발전하

게 되는데, 미국의 LA에서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소수집단간 갈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무기로 피습당한 초, 중, 고등학생이 3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lticultural Collaborative, 1996). 이러한 소수집단간 갈등이 심화되고 외현화된 사건이 1992년 4월 29일 LA에서 일어난 LA폭동으로, 이는 주류집단인 백인과 특정 소수집단간의 갈등이 아니라 흑인과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집단들 사이의 누적된 갈등이 폭발한 현상으로, 폭동과정에서 서로 다른 민족집단에 대한 공격이 만연했다는 사실(장태한, 2007)은 소수집단간 갈등현상이 심화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 내에서 소수집단간 갈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가시화된 문제는 아니나 점차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소수집단이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며, 특히 미래 통일한국 사회에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기준에서 남한과 더 가까운 북한출신자와 다문화집단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집단간 갈등의 문제들, 특히 북한출신자들과 다문화집단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미리 가늠해 봄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 현실갈등인식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외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편견과 차별, 또는 집단간 갈등과 관련된다고 알려진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 사회정체감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외 외집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실갈등(Realistic Conflict)이론은 집단간

갈등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돈, 명성, 천연자원, 에너지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기에 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들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집단은 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Forsyth, 1999), 그 결과 다른 집단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 경쟁심과 적개심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동반되면서 이 부정적인 평가가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부풀려지고 자연스럽게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이론이다(Sherif, 1966). 지금까지 현실갈등인식이 한국사회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일관되게 산출된 바 있는데,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는 현실갈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소수집단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자녀, 조선족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아지고 긍정적 태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계민(2010)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시 현실갈등인식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숙 등(2011)의 연구에서도 이주민이 자신들의 현실적 이득을 위협한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거리감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지각하거나 혹은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지각하는 현실적 위협이 편견을 높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다수자 집단이 소수집단과의 현실갈등을 인식하게 될 때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현상은 다수자와 소수자 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현실갈등인식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Coenders, Lunners, 그리고 Scheepers(2003)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수집단과 소

수집단이 갈등을 겪을 경우 주로 다수자 집단 중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노동자 계층이 소수집단과 갈등을 겪는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상류계층의 경우 그들이 지닌 자원을 이주자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갈등을 경험할 필요가 없고,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노동자들이 계층적으로 취약한 이주자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에 비해서 낮은 계층을 이루고 있고,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 등의 제한된 자원을 두고 다문화집단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다고 인식한다면, 다문화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내에서 주류집단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현실갈등 인식을 할 경우 이것이 다문화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사회정체감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외집단에 대한 태도형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사회정체감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다. 사회정체감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에서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차별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Tajfel, 1978). 따라서 사회정체감 이론에 근거한다면, 사회정체감이 높을수록 내집단 편애는 더욱 높아지게 되고 외집단 차별현상은 더 높아진다(김금미, 한덕웅, 2002a, 2002b; Oakes & Turner, 1980; Tajfel, 1978, 1981). 그러나 사회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 Theory)이론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동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범주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적 속성 때문에 내집단 선호 및 외집단 차별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인지적 속성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내집단(ingroup)으로 범주화하고 자기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외집단(outgroup)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람들이 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고, 이 대상들을 집단 범주에 의거하여 지각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hetherell, 1987).

이 두 이론에 근거하면 그것이 동기의 문제이든 인지적 특성의 문제이든, 내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선호(Brewer, 1979)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의존 및 협동적인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소속감을 강화하고, 내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자원들을 획득하여 결국은 개인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설명되기도 한다(Brewer, 1981). 이를 위해서는 내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가 필수적인데, 상호신뢰를 위해서는 자신을 독특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탈개인화(depersionalization)의 상태가 되고, 그 결과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인 매력을 촉진시키고 내집단의 규범에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강화되며 훌륭한 집단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Brewer, 2001).

그렇다면 한국인의 사회정체감은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경우 역사적으로 식민시대를 경험하였고, 현재까지도 분단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기에, 오랜 시간 국내외 한국민족의 뿌리를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을 응집시키고 민족정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한민족정체성을 강조하여 왔다(이광규, 2005). 특히 분단이라는 정치적 현실에서 볼 때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의 근거는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국가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

에 한국인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한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는(윤경로, 2004) 방식으로 한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한민족정체성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족 정체성을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지식과 그 집단의 구성원임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Tajfel, 1981) 또는 공유된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특정 민족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Phinney, 1990; Shibutan & Kwan, 1966)으로 본다면, 한민족정체성은 ‘한국인’ 또는 ‘한민족’이라는 집단 구성원임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 또는 소속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일종의 민족정체감(ethnic identity)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볼 때,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대감을 가지게 하고,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지니며(Jones, 1997), 집단 수준에서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 내집단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정치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Tajfel, 1981; Thoits & Virshup, 1997; Turner, 1987). 즉, 민족정체감이 내집단 내에서는 집단응집성(Turner, 1985)과 관련되고 외집단과의 관계에서는 고정관념과 집단간 갈등(Jussim, Ashmore, & Wilder, 2001)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남한주민으로 인정받고 ‘한국사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넘어왔지만 ‘남한주민’ 또는 ‘한국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이고, 북한이탈주민에 있어서 한민족정체성은 남한주민으로 ‘포함’되는 동시에 이주배경의 다문화집단구성원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보다 주류에 가깝다는 인식을 스스로 하는 것이 정신건강 및 심리적응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나타내는 한민족정체성은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 내에서 심리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민족정체성은 이주배경의 다문화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집단간 접촉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 중 ‘접촉가설’은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외집단 구성원과의 긍정적이고 빈번한 접촉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Allport, 1954)에서 외집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집단 간 빈번한 접촉은 개인이 집단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외집단 구성원을 내집단으로 포함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Eller & Abrams, 2003; Pettigrew, 1998), 상호간 소통의 증가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고 타집단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며(Pettigrew & Tropp, 2008), 집단 간 접촉 할 기회가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친밀감이 높아져 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되고 높은 호감을 보이는 등(Eller & Abrams, 2003; Hewstone, Rubin & Willis, 2002) 태도변화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Eller & Abrams, 2003; Pettigrew, 1988). 집단간 접촉은 인지적 측면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집단간 접촉을 통해 외집단 구성원의 감정을 공유하고 외집단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게 되어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서 상대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획득할 수도 있다(Pettigrew, 1997; Turner, Hewstone & Voci, 2007). 접촉가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접촉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종집단간 또는 민족집단 간에 존재하는 편견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집단성원들 간의 일시적·우연적 접촉이 아닌 비교적 지속적이고 친밀한 접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Brown & Turner, 1981; Powers & Ellison, 1995; Sigelman & Welch, 1993).

국내에서도 태도에 대한 접촉의 효과를 나타낸 연구결과들이 있다. 우선, 김이선 등(2007)의 연구에서는 친밀한 접촉이 종족적 배제주의를 낮춘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김혜숙 등(2011)의 연구에서는 접촉 수(만나는 사람의 수)와 접촉빈도(만나는 횟수)의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는데, 이 중 접촉 빈도만이 이주민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부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과 양계민(2013)의 연구에서는 접촉빈도와 접촉자의 수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빈도가 높고 접촉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하며, 이해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외집단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외집단 구성원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Abersson & Haag, 2007).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는 접촉형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바 있는데, 신변담당보호관, 공무원, 대인 학교교사, 같은 교회 교인, 학급 학우 등 다양한 접촉의 방식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감정, 신뢰 및 수용도가 다양함을 보여주어 접촉 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하였고, 미국의 한인과 흑인간의 상호접촉수준에 따른 편견을 분석한 장상희의 연구(1998)에서도 흑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촉을 하는 한인의 경우 흑인에 대한 편견

의 수준이 낮아지지만, 비동등한 접촉은 편견감소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등한 접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접촉이 외집단에 대해 지니는 효과는 외집단 접촉의 수, 빈도, 유형 등에 따라 연구마다 다양하다. 또한 내집단 구성원들이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적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을 한다 해도 외집단 구성원인 개인수준에서의 호감도는 높일 수는 있으나 외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도 있다(Rothbart & John, 1985; Tropp & Pettigrew,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의 효과는 일관되게 산출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내 같은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서도 접촉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접촉의 수준을 분석에 포함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생활과 외집단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우위를 지닌 상태에서 적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중 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한 주변인으로 존재하면서 주류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김광웅, 이봉근, 201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다양한 영역의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로움’이나 ‘주변사람들의 편견이나 무시’,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이금순 외, 2003), 남한주민들과 친밀한 접촉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인진, 2004).

이중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

하는 것 중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최근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표한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결과의 보도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있어서 남한주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비율이 일반국민 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자영업의 비율은 일반국민보다 3배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의 직업유형도 단순노무 종사자가 32.6%로 가장 많고, 서비스 종사자(23.1%),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12.2%), 사무직(8.3%) 등으로 조사되어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직업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하나재단, 2014). 이러한 결과는 과거 여러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로,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활동 인구의 30~40%가량이 실업상태에 있고(윤덕룡, 강태규, 1997; 윤인진, 2000), 취업을 한 경우도 정규직의 비율이 낮으며(이금순 외, 2003),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저임금, 고용불안, 발전가능성 부재 등으로 이직을 빈번히 하게 되고, 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결국 사회의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윤인진, 1999). 특히, 2014년 6월 현재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재복지 직업 중 ‘무직’ 또는 ‘노동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관리직이나 전문직의 비율은 매우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통일부, 2014),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북한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했던 경우가 많고, 일부 북한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했던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는 남한에서 같은 수준의 전문직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생활 및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편견이다. 북한이탈주민 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22.4%)의 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보고한 바 있다(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조영아, 2011 재인용). 이들의 차별감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근거로 외국출신의 이주 배경을 지닌 다문화집단보다는 남한주민들로부터 더 가까운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반해, 실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소수집단 중 가장 덜 선호되는 존재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김혜숙 등, 2003; 김혜숙, 2007; 양계민, 2009; 윤인진과 김상학, 2003; 윤인진과 송영호, 2007). 이렇듯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평가와 외집단이 내집단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괴리가 클수록 그 집단 사람들이 체험하는 갈등과 소외감 및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 신체적 폭력의 동기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전우택, 2000)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차별감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차별감의 효과를 연구한 해외 연구들을 보면, 차별감은 이민자의 정신건강 전반(Liebkind & Jasinskaja-Lahti, 2000)과, 학습된 무기력, 자존감의 손상,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Alvarez, Sanematsu, Woo, Espinueva, & Kongthong, 2006; Greene, Way, & Pahl, 2006; Lee, 2003, 2005; Liang, Alvarez, Juang, & Liang, 2007; Liang & Fassinger, 2008; Williams, Neighbors & Jackson, 2003), 국내에서 수행된 조영아(2011)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의 모순적 대우로 인하여 심리적 혼동의 상태에 놓일 수 있고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욕구좌절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이고, 스스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사상에 근거하여 다른 소수집단에 비해 더 많은 지원과 보상이 주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남한 사회의 그 어떤 소수집단에 비해서도 차별적 존재로 인식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같은 민족’으로써의 특별대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어 서로 회피하거나 대치하는 행동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Mackie, Devos, & Smith, 2000). 이 때 부정적 감정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은 자신을 차별하는 다수자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소수자 집단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자신과 유사한 특성의 다른 소수자 집단을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인식할 경우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남한주민들로부터 차별적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하는 만족도는 다시 세상을 지각하는 인식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양계민(2010)의 연구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성인의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지각하는 만족도가 외집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의 인지적 요소로(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주관적 안녕감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키고(Kahn & Isen, 1993), 타인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증가시키며(Waugh & Fredrickson, 2006), 낙관주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결과들(Compton, 2005;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Veenhoven, 1988) 낙관주의와 같은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구재선, 2009).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상황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연구목적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내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둘째는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소수집단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본 연구에서 주로 보고자 했던 연구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배경 특성에 따라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와 현실갈등,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등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닌 태도를 집단별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4.**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와 현실갈등,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경제적 수준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5.**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실갈등,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 방법

#####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만 19세부터 69세까지의 27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5년 3월~4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고,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122명(44.7%), 여자는 151명(55.3%)으로 여자가 약간 많은 편이었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6명(27.9%), 30대가 63명(23.2%), 40대가 78명(28.7%), 50대 이상이 55명(20.2%)으로 전 연령층이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표집 되었다. 탈북 전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159명(58.3%)으로 가장 많았고, 2년제 대학 졸업이 43명(15.9%), 소학교 졸업이하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각각 35명(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115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104명(38.2%), '아주 어렵다'는 응답이 47명(1.3%), 그리고 '잘사는 편'이라는 응답이 5명 (1.8%), '아주 잘산다'는 응답이 1명(0.4%)인 것으로 나타나,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와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전체의 55.5%가 경제수준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남한거주 기

표 1. 조사참여자의 배경적 특성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성별	남자	122(44.7)	주관적	아주 어렵다	47(17.3)
	여자	151(55.3)	경제수준	어려운 편이다	104(38.2)
연령집단	20대	76(27.9)		보통이다	115(42.3)
	30대	63(23.2)		잘사는 편이다	5( 1.8)
	40대	78(28.7)		아주 잘산다	1( .4)
	50대 이상	55(20.2)	남한	3년 이하	92(33.8)
탈북전 교육수준	소학교 졸업 이하	35(12.9)	거주기간	3년 1개월-5년	107(39.3)
	고등중학교 졸업	159(58.3)		5년 1개월-7년	35(12.9)
	2년제 대학 졸업	43(15.9)		7년 1개월-9년	24( 8.8)
	4년제 대학졸업 이상	35(12.9)		9년 1개월 이상	14( 5.1)

간은 8개월부터 19년 까지 매우 다양하였는데, 3년 이하 거주경험자가 92명으로 전체의 33.8%였고, 3년 1개월부터 5년 이하 거주자가 107명(39.3명), 5년 1개월부터 7개월 이하 거주자가 35명(12.9%), 7년 1개월 이상 9년 이하가 24명(8.8%), 9년 1개월 이상자가 14명(5.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주관적경제수준 등 배경변인 외에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 현실적 갈등, 한민족정체성, 사회적차별감,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북한이탈주민임을 감안하여 설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대한 포함하되 문항수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한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설문이해에 어려움을 지니고 따라서 더 쉽게 피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집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설문지의 맨 앞에 다문화집단 내 각 소수

집단별로 특성을 기술하여 제시하였고, 설문조사시에는 면접원이 일대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 다문화집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였으며, 설문과정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질문하도록 하여 최대한 설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우선 첫째로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는 남한 내 다문화집단 중 대표적인 집단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측면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인지, 정서, 행동요인의 문항 중 일부를 선별 및 수정하였다. 선별 및 수정은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박사 각 1명과 북한학 전공 석사 2명 등 총 5명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인지.** 인지요인은 ‘신뢰할 수 있다’, ‘거부감이 든다’, ‘친절하다’, ‘유능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게으르다’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가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척도의 신뢰도는 긍정적 태도 3문항과 부정적 태도 3문항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각각에 대한 긍정태도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62 \sim .75$ 였고, 부정적인 태도는  $\alpha = .61 \sim .74$ 까지였다.

**정서.** 정서는 ‘관심이 간다’, ‘정이 간다’, ‘가 없다’, ‘안되보인다’, ‘피하고 싶다’, ‘두렵다’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역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이 이러한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서척도의 신뢰도 역시 긍정, 부정, 연민으로 나누어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정서태도의 신뢰도는  $\alpha = .81 \sim .86$ 이었고, 부정적 정서태도는  $\alpha = .72 \sim .83$ , 연민 정서태도는  $\alpha = .72 \sim .83$ 이었다.

**행동.** 행동은 각 대상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결혼이주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해서는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의 세 가지 문항을 질문하였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추가로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료와 결혼시킬 수 있다’의 두 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사회적 거리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각각의 경우  $\alpha = .75 \sim .88$ 까지였다.

####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들을 대상으로 접

촉수준을 조사하였는데, 단순한 접촉빈도 보다는 관계의 질에 초점을 두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본적이 없다’, ‘그냥 길에서 지나다 우연히 보았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았다’, ‘자녀 학교의 학부모로 온 것을 보았다’, ‘같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다(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친구로 지내고 있다(또는 친하게 지내고 있다)’, ‘가족 중에 있다’ ‘기타’ 등의 총 9개 범주 중 접촉의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직접 본적이 없다’, ‘그냥 길에서 지나다 우연히 보았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문항과, 그 외에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다’, ‘자녀의 친한 친구이다’, ‘가족 중에 있다’는 문항 포함한 7개 범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대상에 대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대상 집단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지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접촉의 수준은 결혼이주성과 외국인노동자는 1점부터 9점까지, 다문화가정자녀는 1점부터 7점까지 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깊은 수준의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현실적 갈등

현실적 갈등은 양계민(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기초로 다문화집단과 북한이탈주민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갈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수정의 태도에 대한 문항선별과정과 마찬가지로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박사 각 1명과 북한학 전공 석사 2명 등 총 5명이 합의하였다. 문항은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줄어든다’, ‘다문화배경 이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 일자리를 놓고 경

쟁할 수 있다',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지원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 '다문화배경 이주민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등의 총 다섯 문항이었고,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8$ 이었다.

###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은 양계민의 연구(2008)에서 한민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중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정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세 문항, 즉, '한국을 유지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 것이 자랑스럽다'의 총 세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세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82$ 였다.

### 지각된 차별감

차별감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는 Sandhu (1994)의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의 36문항을 이승중(1995)이 번안한 척도를 이소래(1997)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을 양계민 등(2011)의 연구에서 최종 선정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래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양계민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는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감과 그로 인한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기에 차별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선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사회에서 한국사람들과 다르게 취급된다', '남한 사람들은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나는 고향을 떠나

나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프다',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립다', '나는 북한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8$ 이었다.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양계민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고,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4$ 였다.

## 결 과

배경특성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및 연령집단별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높은 부정적 정서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정서 그리고 행동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행동에서만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 나머지 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집단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태도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인지의 경우 20대와 50대 이상의

표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태도	대상	성별			연령				F
		남	여	t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인지 긍정	결혼이주여성	3.07(.59)	3.21(.55)	-1.94	3.19(.58)	3.02(.54)	3.12(.52)	3.27(.65)	1.98
	다문화가정자녀	3.16(.64)	3.18(.52)	-.37	3.27(.56)	3.04(.59)	3.10(.50)	3.28(.66)	2.77*
	외국인노동자	2.94(.70)	3.06(.59)	-1.51	2.97(.66)	2.88(.58)	3.02(.57)	3.15(.76)	1.70
인지 부정	결혼이주여성	2.53(.68)	2.56(.59)	-.37	2.45(.63)	2.68(.66)	2.60(.56)	2.45(.67)	2.11
	다문화가정자녀	2.43(.63)	2.45(.66)	-.36	2.46(.59)	2.50(.66)	2.50(.64)	2.44(.64)	1.67
	외국인노동자	2.51(.69)	2.53(.63)	-.29	2.51(.71)	2.59(.68)	2.51(.56)	2.47(.68)	.35
정서 긍정	결혼이주여성	3.23(.76)	3.30(.72)	-.82	3.20(.76)	3.17(.64)	3.29(.73)	3.27(.74)	1.51
	다문화가정자녀	3.40(.76)	3.39(.66)	.12	3.34(.66) <sub>ab</sub>	3.25(.71) <sub>b</sub>	3.40(.66) <sub>ab</sub>	3.63(.80) <sub>a</sub>	3.07*
	외국인노동자	3.13(.82)	2.97(.77)	1.64	3.01(.70)	2.88(.71)	3.08(.80)	3.25(.97)	2.34
정서 부정	결혼이주여성	2.15(.71)	2.35(.78)	-2.16*	2.26(.70)	2.34(.63)	2.34(.69)	2.21(.96)	2.29
	다문화가정자녀	2.08(.73)	2.15(.77)	-.77	2.10(.76)	2.24(.71)	2.10(.70)	2.06(.86)	.69
	외국인노동자	2.16(.76)	2.40(.84)	-2.48*	2.28(.81)	2.42(.70)	2.26(.80)	2.19(.91)	.89
정서 연민	결혼이주여성	2.88(.86)	2.90(.87)	-.17	2.79(.83)	3.06(.79)	2.78(.80)	3.00(1.05)	1.80
	다문화가정자녀	2.83(.90)	2.87(.88)	-.38	2.66(.83)	2.84(.79)	2.81(.77)	2.96(1.07)	1.31
	외국인노동자	2.83(.90)	2.87(.88)	-.38	2.87(.88)	2.86(.83)	2.77(.87)	2.91(.99)	.30
행동	결혼이주여성	3.60(.73)	3.46(.69)	1.61	3.54(.64) <sub>ab</sub>	3.31(.69) <sub>b</sub>	3.52(.68) <sub>ab</sub>	3.76(.82) <sub>a</sub>	4.05**
	다문화가정자녀	3.39(.76)	3.41(.70)	-.24	3.35(.64) <sub>ab</sub>	3.30(.72) <sub>b</sub>	3.35(.78) <sub>ab</sub>	3.65(.78) <sub>a</sub>	2.88*
	외국인노동자	3.11(.80)	3.16(.73)	-.61	3.12(.70)	3.04(.69)	3.12(.78)	3.32(.89)	1.39

\*  $p < .05$ , \*\*  $p < .01$ , Tukey: a>b

평균값이 30대와 40대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정서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50대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의 경우 역시 50대 이상인 사람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 집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적 경제수준을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그 이상’으로 나누어서 태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원래 설문문항에는 ‘잘 산다’, ‘아주 잘 산다’는 응답도 포함되었으나 이 두 개의 범주에

속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보통 및 그 이상으로 합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지, 정서, 행동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 차별감, 현실 갈등인식, 그리고 한민족정체성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민족정체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집단이 20대와 30대에 비해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성별, 연령별 집단차

표 3.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성별		<i>t</i>	연령				<i>F</i>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현실갈등	2.95(.72)	2.83(.70)	1.14	2.91(.71)	3.02(.75)	2.88(.64)	2.71(.74)	1.91
한민족정체성	3.78(.89)	3.63(.80)	1.49*	3.35(.74) <sub>b</sub>	3.38(.87) <sub>b</sub>	3.97(.75) <sub>a</sub>	4.13(.74) <sub>a</sub>	17.59***
차별감	3.15(.74)	3.20(.67)	-.61	3.23(.68)	3.05(.64)	3.27(.64)	3.14(.84)	1.32
삶의 만족도	3.32(.85)	3.25(.79)	.64	3.32(.79)	3.17(.85)	3.25(.85)	3.40(.76)	.84

\*  $p < .05$ , \*\*\*  $p < .001$ , Tukey: a>b

표 4.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가정경제수준별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및 삶의 만족도

	아주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그 이상	<i>F</i>
현실갈등	3.14( .75) <sub>a</sub>	2.95(.64) <sub>ab</sub>	2.72(.72) <sub>b</sub>	7.09***
한민족정체성	3.92(1.01) <sub>a</sub>	3.62(.87) <sub>b</sub>	3.67(.74) <sub>ab</sub>	2.11
차별감	3.37( .76) <sub>a</sub>	3.24(.64) <sub>ab</sub>	3.04(.71) <sub>b</sub>	4.38*
삶의 만족도	3.12( .85) <sub>b</sub>	3.13(.79) <sub>b</sub>	3.48(.78) <sub>a</sub>	6.66***

\*  $p < .05$ , \*\*\*  $p < .001$ , Tukey: a>b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현실갈등, 차별감,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주관적인 가정경제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현실갈등, 차별감은 높게 지각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정체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의 한민족 정체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 각 대상에 대해 지니는 태도 차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다문화집단 각 대상별로 지니는 태도가 어떠한지 비교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지, 정서 및 행동의 태도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태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지태도는 다문화가정자녀의 평균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정서의 경우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순이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민정서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순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고, 다음이 결혼이주여성이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5.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

태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F
인지	긍정	3.14(.57) <sup>a</sup>	3.17(.58) <sup>a</sup>	3.00(.64) <sup>b</sup>	12.18 <sup>***</sup>
	부정	2.55(.63) <sup>a</sup>	2.45(.64) <sup>b</sup>	2.52(.66) <sup>a</sup>	5.36 <sup>**</sup>
정서	긍정	3.27(.74) <sup>b</sup>	3.40(.71) <sup>a</sup>	3.04(.80) <sup>f</sup>	30.08 <sup>***</sup>
	부정	2.26(.76) <sup>a</sup>	2.12(.75) <sup>b</sup>	2.29(.89) <sup>a</sup>	8.95 <sup>***</sup>
	연민	2.89(.87)	2.81(.86)	2.84(.89)	1.83
행동	사회적거리감	3.54(.71) <sup>a</sup>	3.40(.73) <sup>b</sup>	3.15(.76) <sup>f</sup>	52.45 <sup>***</sup>

\*\*  $p < .01$ , \*\*\*  $p < .001$ , Bonferroni:  $a > b > c$

다문화집단의 접촉경험에 따른 태도 차이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과 접촉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접촉수준별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집단을 접촉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이주여성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5%였고, 다문화가정자녀와의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가 44.7%, 외국인노동자와의 접촉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24.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길가다가 우연히 보았다’거나,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거나 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단순접촉의 비율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40.7%, 다문화가정자녀를 단순 접촉한 비율이 46.5%, 외국인노동자를 단순 접촉한 비율이 43.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접촉경험이 없거나

단순한 접촉의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접촉의 수준에 따라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접촉의 효과는 결혼이주여성과의 접촉경험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정자녀의 접촉경험에 따른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태도, 외국인노동자의 접촉경험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 등으로 각각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첫째로, 결혼이주여성과 접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친밀한 접촉경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긍정적 인지, 부정적 인지, 부정적 정서, 연민정서 및 사회적 거리감 전반에서는 접촉수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자녀의 경우는 약

표 6.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다문화집단 접촉경험

접촉수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접촉경험 없음	116(42.5)	122(44.7)	68(24.9)
단순접촉	111(40.7)	127(46.5)	119(43.6)
약한 상호작용	26( 9.5)	-	53(19.4)
친밀한 접촉	17( 6.2)	10( 3.7)	29(10.6)
무응답	3( 1.1)	14( 5.1)	4( 1.5)
합계		273(100)	

표 7. 결혼이주여성의 접촉수준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태도

태도		접촉없음(N=116)	단순접촉(N=111)	약한상호작용(N=26)	친밀한 접촉(N=17)	F
인지	긍정	3.21(.57)	3.05(.55)	3.25(.54)	3.25(.73)	1.85
	부정	2.48(.65)	2.66(.59)	2.40(.61)	2.55(.71)	2.07
정서	긍정	3.23(.74) <sub>b</sub>	3.20(.74) <sub>b</sub>	3.44(.65) <sub>ab</sub>	3.68(.79) <sub>a</sub>	2.65*
	부정	2.35(.80)	2.24(.72)	2.06(.65)	2.12(.65)	1.42
	연민	2.92(.89)	2.94(.84)	2.48(.77)	3.00(.90)	2.23
행동	사회적거리감	3.49(.72)	3.50(.75)	3.59(.62)	3.80(.53)	1.06

\*  $p < .05$ , Tukey:  $a > b > c$

한 친밀한 접촉경험 집단이 접촉이 없거나 단순 접촉한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인지 및 정서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정적인 태도나 연민정서 및 행동의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경우, 평균값으로 볼 때 친밀한 접촉을 할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긴 하였으나 접촉수준에 따른 차이가 인지, 정서, 행동 전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경제수준과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전반이 낮아지고 부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차별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차별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태도는 낮아지고, 부정적 태도는 높아졌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실갈등인식과 마찬가지로 차별감을 경험할수록 모든 다문화집단에 대한 연민의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8. 다문화가정자녀의 접촉수준에 따른 다문화가정자녀 대한 태도

태도		접촉없음(N=122)	단순접촉(N=127)	친밀한 접촉(N=10)	F
인지	긍정	3.19(.50) <sub>b</sub>	3.09(.62) <sub>b</sub>	3.87(.67) <sub>a</sub>	8.73***
	부정	2.48(.63)	2.44(.64)	2.03(.81)	2.26
정서	긍정	3.37(.66) <sub>b</sub>	3.37(.71) <sub>b</sub>	4.00(.85) <sub>a</sub>	3.97*
	부정	2.17(.81)	2.10(.71)	1.80(.67)	1.23
	연민	2.80(.83)	2.86(.83)	2.70(1.44)	.24
행동	사회적거리감	3.37(.69)	3.39(.73)	3.96(.87)	2.93

\*  $p < .05$ , \*\*\*  $p < .001$ , Tukey:  $a > b > c$

표 9. 외국인노동자의 접촉수준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

태도		접촉없음(N=68)	단순접촉(N=119)	약한상호작용(N=53)	친밀한 접촉(N=29)	F
인지	긍정	2.95(.66)	2.98(.65)	3.02(.60)	3.20(.67)	1.08
	부정	2.59(.70)	2.55(.65)	2.41(.52)	2.45(.78)	.92
정서	긍정	2.85(.69)	3.07(.81)	3.13(.82)	3.22(.89)	2.09
	부정	2.43(.80)	2.32(.83)	2.11(.73)	2.19(.81)	1.72
	연민	2.83(.77)	2.87(.90)	2.91(.87)	2.72(1.07)	.29
행동	사회적거리감	3.00(.68)	3.16(.83)	3.19(.70)	3.35(.79)	1.55

표 10.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갈등,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만족도와 다문화집단에 대한 인식의 관계

영역	태도	대상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긍정 태도	인지	결혼이주여성	-.16**	-	-.16**	.26***
		다문화가정자녀	-.16**	-	-.27***	.24***
		외국인노동자	-.17**	-	-.22***	.22***
	정서	결혼이주여성	-.13*	.14*	-	.14*
		다문화가정자녀	-.22***	-	-.16**	.17**
		외국인노동자	-	-	-	-
부정 태도	인지	결혼이주여성	.34***	.16**	.24***	-
		다문화가정자녀	.32***	-	.33***	-
		외국인노동자	.27***	-	.21***	-
	정서	결혼이주여성	.29***	-	.20***	-
		다문화가정자녀	.33***	-	.18**	-
		외국인노동자	.30***	-	.22***	-
연민	결혼이주여성	-	-	.16*	-	
	다문화가정자녀	.14*	-	.20***	-	
	외국인노동자	-	-	.15*	-	
행동	사회적 거리감	결혼이주여성	-.15*	.18**	-.15*	.17**
		다문화가정자녀	-.23***	-	-.24***	.13*
		외국인노동자	-.20***	-	-.29***	.16**

\*  $p < .05$ , \*\*  $p < .01$ , \*\*\*  $p < .001$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인지 및 정서의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거리감은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관분석에 포함하였으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산출되지 않아 표 10에 제시하지는 않

표 11.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경제수준의 상관관계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한민족정체성	-	1.00		
지각된 차별감	.35***	.17**	1.00	
삶의 만족도	-.14*	-	-.29***	1.00
주관적경제수준	-.21***	-	-.17**	.19***

\*  $p < .05$ , \*\*  $p < .01$ , \*\*\*  $p < .001$

왔다.

두 번째로는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경제수준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사회에서 지각하는 차별감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 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민족정체성이 높아질수록 남한사회에서 지각하는 차별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감 지각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주관적 경제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집단 대상별로 지니고 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의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각 집단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의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주관적 경제수준은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태도의 긍정성 및 부정성 여부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기에 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지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의 만족도였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느낄수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의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한민족 정체성이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모든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차별감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정자녀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인지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문화집단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현실갈등인식과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지각된 차별감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과의 현실적 갈등을 인식할수록, 그리고 남한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경우 차별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 대하여 부정적 인지 및 정서 영역에서 일관되게 현실갈등인식과 차별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으로 분류된 각 대상에 대해 경험하는 연민정서와 사

표 12.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긍정적 태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sup>2</sup>	
인지 긍정	결혼이주여성	삶의 만족도	.23	3.65***	.09***
	다문화가정자녀	지각된 차별감	-.22	-3.34***	.13***
		삶의 만족도	.18	3.00***	
		한민족정체성	.16	2.69**	
		삶의 만족도	.18	2.90**	
	외국인노동자	지각된 차별감	-.16	-2.38*	.11***
한민족정체성		.13	2.13*		
정서 긍정	결혼이주여성	한민족정체성	.16	2.66**	.06**
	다문화가정자녀	현실갈등인식	-.18	-2.76**	.09***
		한민족정체성	.14	2.32*	
		삶의 만족도	.13	2.12*	
	외국인노동자	한민족정체성	.19	3.09**	.05***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3.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정적 태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sup>2</sup>	
인지 부정	결혼이주여성	현실갈등인식	.30	4.79***	.14***
		지각된 차별감	.14	2.16*	
	다문화가정자녀	현실갈등인식	.25	4.08***	.16***
		지각된 차별감	.24	3.81***	
외국인노동자	현실갈등인식	.22	3.44***	.09***	
	지각된 차별감	.14	2.10***		
정서 부정	결혼이주여성	현실갈등인식	.26	4.09***	.11***
		지각된 차별감	.14	2.17*	
	다문화가정자녀	현실갈등인식	.31	4.99***	.13***
		현실갈등인식	.25	3.92***	
외국인노동자	지각된 차별감	.14	2.50*	.11***	

\*  $p < .05$ , \*\*\*  $p < .001$

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연민정서에는 차별감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민정서에는 투입된 독립변인 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된 요인이 없었

표 14.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민과 사회적 거리감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2$
정서 연민	결혼이주여성	지각된 차별감	.15	2.18*	.03
	다문화가정자녀	지각된 차별감	.20	3.88**	.05**
사회적 거리감	결혼이주여성	한민족정체성	.21	3.53***	.09***
		삶의 만족도	.14	2.20*	
	다문화가정자녀	지각된 차별감	-.17	-2.55**	.09***
		현실갈등인식	-.17	-2.63**	
외국인노동자	지각된 차별감	-.24	-3.68***	.11***	

\*  $p < .05$ , \*\*  $p < .01$ , \*\*\*  $p < .001$

다. 영향의 방향을 살펴보면 본인이 차별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두 집단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정서의 증가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감정이 개입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는 대상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민족정체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는 차별감과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차별감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인 북한이탈주민이 또 다른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집단간 갈등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 등 인구학적 배경특성에 따른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영역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고,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성별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결혼이주성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결혼이주 여성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근거로 추론해 보자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대상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한 경쟁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범죄 등 부정적 특성이 연상되기 쉬운 집단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피해자 인식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으로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령별 차이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정서에서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의 경우는 20대와 50대

이상이 30대와 4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가지는 경향이 많고 30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행동의 경우도 50대 이상의 태도가 가장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마도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의 거주기간이 길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가능성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연령차가 모든 집단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용성의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자신들에게 덜 위협적인 존재인 아이들에 대한 수용성만이 제한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후추론으로 추후 연구에서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이어 현실갈등인식, 한민족정체성, 차별감, 삶의 만족도가 성별, 연령별,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다르지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한민족 정체성이었다. 한민족정체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한민족 정체성을 제외하고 현실갈등인식, 차별감, 삶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현실갈등인식이 높고, 차별감도 많이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뒤의 상관분석에서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서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닌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에 국내 여러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세 종류의 다문화집단 중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은 김혜숙(2011)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김혜숙(201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하고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의 대상이 이주노동자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실갈등을 인식하고 사회적 차별감을 강하게 느낄 경우 욕구좌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이주노동자 집단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다문화교육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다문화집단과의 접촉수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접촉의 효과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긍정적 정서의 세 가지 영역에서만 나타나고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접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대부분 접촉이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Eller & Abrams, 2003; Hewstone, Rubin & Willis, 2002; Pettigrew, 1998) 사실상 긍정적 태도에서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 수준이 아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긍정적 정서의 측면에서 친밀한 접촉을 할수록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집단과의 접촉은 긍정적인 태도, 그 중 긍정적인 정서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집단간 이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러한 접

축의 효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접촉의 효과가 모든 대상에 대해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집단을 접촉한 경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한 접촉경험자가 부족해서였을 가능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문화집단 구성원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거나 만나보았다 할 지라도 거의 지나가다가 보는 정도의 단순접촉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촉의 효과와 함의를 현실적 측면에서 찾아내고자 한다면 심층면접을 통한 상호접촉의 기제와 상호간 관계의 역동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와 현실갈등, 한민족 정체성, 지각된 차별감, 삶의 만족도, 경제적 수준 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차별감은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의 대부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는 낮아지고 부정적 태도는 높아졌으며 사회적 거리감도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의 경우는 긍정적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에서만 유의미한 관계가 산출되었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감은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 정체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인지, 사회적 거리감 부분에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인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은 낮아지며, 차별감의 지각 수준도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관계가 산출되었으나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이 현실갈등인식이나 차별감, 삶의 만족도 등 자신의 개인적 심리상태와 적응수준까지는 영향을 미치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외집단에 대한 태도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더 많이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5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우선 첫째로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요인이 산출되었다. 즉,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수록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하고(Veenhoven, 1988), 타인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증가시킨다는 결과(Waugh & Fredrickson, 2006)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양계민(2010)의 연구에서도 다수자 집단 사람들이 지닌 주관적 안녕감은 소수집단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타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수자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황이든 소수자끼리 평가를 하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삶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빈곤한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김광웅, 이봉근, 2011)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감소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한민족정체성이었다.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도 한민족정체성이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된 바 있는데, 그 연구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와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긍정적 태도에서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민족정체성이 산출되어 남한주민의 태도와 차이를 드러내었다. 또한 영향력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한민족정체성의 내용이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배타적인 한민족정체성은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관련이 될 수 있으나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오히려 긍정적 태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현실갈등인식이 모든 다문화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과 현실갈등의 상태에 있다고 지각할수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김혜숙, 2011; 양계민, 2009; 양계민,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남한주민들에 비해 소유한 자원이 더 제한적이고, 따라서 정부나 지역사회, 교회 등의 사회적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며 이러한

자원들을 다른 소수집단과 나누거나 경쟁하는 상황은 그들의 삶에 매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넷째, 지각된 차별감 역시 현실갈등인식과 함께 다문화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된다는 결과인데, 위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즉,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한 경우 외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지만 사회적 차별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부정적 감정의 상태에 있기 될 경우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좌절된 욕구를 해소할만한 대상으로써 다른 소수집단을 사용할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좀 더 평가가 엄격해 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연민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차별감이 산출되었다. 즉, 차별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 두 집단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높아졌다는 결과인데, 지각된 차별감이 부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외집단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수자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같은 소수집단으로써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내 소수집단인 다문화집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였다. 연구결과 현실갈등인식, 지각된 차별감 등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삶의 만족도나 한민족정체성은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각 요인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각 요인이 어떤 기제로 다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한 함의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수준에서 끝나기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기제를 보다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니며, 추후 추가적인 분석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했던 한계들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구재선 (2009).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65-179.
- 김광웅, 이봉근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5(1), 1-38.
- 김금미, 한덕웅 (2002a).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2), 147-171.
- 김금미, 한덕웅 (2002b). 집단간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1-14.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김혜숙 (2000).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15-134.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남북하나재단 (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보도자료.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_Report\\_Detail.do?pageIndex=2&key=75083](https://www.koreahana.or.kr/eGovHana_Report_Detail.do?pageIndex=2&key=75083).
- 박영정 (2011).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11-62.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http://www.dongposarang.or.kr>.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안전행정부 통계자료.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2015). 청소년과 다문화수용성, 청소년문화론 2판. 서울: 교육과학사.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권 특집호, 97-115.
-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R08-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경로 (2004). 미주한인사회의 초기 구국운동과 한민족의 정체성: 1910년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심포지움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윤덕룡, 강태규 (1997).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 1(2), 169-220. 연세대 통일연구원.
-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511-549.
- 윤인진 (2000). 탈북자의 취업 및 직장부적응 상황.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발표요약집. 2000권 2호 247-252.
- 윤인진 (2003).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거리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사회운동과 사회변동. 나남출판, 593-645.
- 윤인진 (2004).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최 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엮음.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인진, 김상화 (2003).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 사회 2003년 여름호(통권제 58호), 222-248.
- 윤인진, 송영호 (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논국제이주/소수자 분과 발표논문집. 강원대학교, 12월 14-15일(2007년).
- 이광규 (2005). 세계 속 동포들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29호, 1-10.
- 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3-07.
- 이기식 (2008). 독일 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양계민 (2013). 북한이탈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1), 395-421.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두, 백미현 (2014).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정책. 한국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윤인진, 황정미 엮음). 아연동북아총서 20. 서울: 아연출판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임성택 (2003). 세계시민교육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분석. 교육학연구, 41(3), 274-301.
- 장상희 (1998). 인종간 접촉과 편견: 미국내의 흑인 집단간 비교연구. 사회조사연구, 13(1), 43-59.
- 장태한 (2007). 아시아아메리칸: 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서울: 책세상
- 전우택 (2000). 땅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통일에 있어 민족 이질화의 내용과 극복방안. 기독교학문 연구소. 신앙과 학문, 63-87.
- 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1), 1-19.
- 통일부 (2014). 2014 북한이탈주민입국현황.
- Aberson, C. L. & Haag, S. C. (2007). Contact, perspective taking and anxiety a predictors of stereotype endorsement explicit attitudes and implicit attitud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2), 179-201.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Doubleday anchor books, New York.

- Alvarez, A. N., Sanematsu, D., Woo, D., Espinueva, M., & Kongthong, J. (2006). *Chinese Americans and racism's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11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LA.
- Baker, J., & Binham, C. (1991). Minority against minority. *Newsweek*, 5/20/1991, 117(20), 28.
-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 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86(2), 307-324.
- Brewer, M. B. (1981). Ethnocentrism and its role in intergroup trust. In M. Brewer & B. Collins (Eds.), *Scientific inquiry in the social sciences* (pp. 214-231). San Francisco: Jossey-Bass.
- Brewer, M. B. (2001). Ingroup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conflict. In L. Jussim, Ashmore, R. D., & Wilder, D. (Eds), *Social Identity, Intergroup Conflict, and Conflict Re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R. J., & Turner, J. C. (1981).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Behavior. In Turner, J. C., & Giles, H. (Ed.) *Intergroup behavior*.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 Coenders, M., Lunners, M., & Scheepers, P. (2003).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http://eumc.int>.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son Wadsworth. *Counseling Psychology*, 54, 132-14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ller, A. & Abrams, D. (2003). Gringos' in Mexico: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ffects of Language School-Promoted Contact on Intergroup Bia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6(1), 55-75.
- Forsyth, D. R. (1999). *Group Dynamics* (3r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Greene, M. L., Way, N., & Pahl, K. (2006). Trajectories of perceived adult and peer discrimination among Black, Latino and Asian America adolescents: Patterns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 218-238.
- Hewstone, M., Rubin, M., & Willis, H. (2002).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575-604.
- Jones, J. (1997). *Prejudice and Racism* (seco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Jussim, L., Ashmore, R. D. & Wilder, D.. (2001).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conflict. In L. Jussim, Ashmore, R. D., & Wilder, D. (Eds), *Social Identity, Intergroup Conflict, and Conflict Re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hn, B. E., & Isen, A. M. (1993).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variety seeking among safe, enjoyable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257-270.
- Lee, R. M. (2003). Do ethnic identity and other-group orientations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for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33-141.
- Lee, R. M. (2005). Resilience against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other-group orientation as protective factors for Kore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36-44.
- Liang, C. T. H., & Fassinger, R. E. (2008). The role of collective self-esteem for Asian Americans experiencing racism-related stress: A test of moderator and mediator hypothese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 19-28.
- Liang, C. T. H., Alvarez, A. N., Juang, L., & Liang, M. (2007). The role of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acism and racism

- related stress for Asian Americans: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132-141.
- Liebkind, K., & Jasinskaja-Lahti, I. (2000). The Influence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psychological stress: A comparison of seven immigrant groups. *Journal of Community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1-16.
- Mackie, D. M., Devos, T., Smith, E. R. (2000).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02-616.
- Multicultural Collaborative. (1996). *Race, Power, and Promise in Los Angeles: An Assessment of Responses to Human Relations Conflict*. Los Angeles: Multicultural Collaborative.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Oakes, P. L., & Turner, J. 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Does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make social identity more pos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95-301.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8). How does intergroup contact reduce prejudice? Meta-analytic tests of three mediator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3(6), 922-934.
- Pettigrew, T. F. (1997). Generalized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2), 173-185.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9, 65-85.
- Phinney, J.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Powers, D. A. & Ellison, C. G. (1995). Interracial Contact and Black Racial Attitudes; The Contact Hypothesis and Selectivity Bias. *Social Forces*, 74(1), 205-226.
- Rothbart, M. & John, O. P.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behavioral episodes: a cogni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41(3), 81-104.
- Sandhu, D. S., & Asrabalah,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 Shibutan, T., & Kwan, K. (1966). *Ethnic Stratification: A comparative Approac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Sigelman, L. & Welch, S. (1993). The Contact Hypothesis Revisited: Black-White Interaction and Positive Racial Attitude. *Social Forces*, 71(3), 781-795.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its, P. A., & Virshup, L. K. (1997). Me's and we's: Forms and functions of social identities. In R. D. Ashmore, & L. Jussim, (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Rutgers Series on Self and Social Identity, Volume 1; pp. 106-133). New York: Basil Blackwell.
- Tropp, L. R. & Pettigrew, T. F. (2004). Intergroup contact and the central role of affect in intergroup prejudice. In C. W. Leach & L. Tiedens (Eds.), *Social life of emo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E. J. Lawlen(Ed.) *Advanced in*

- Group Process: Theory and Research, Vol. 2.* Greenwich, Com: JAIP.
- Turner, J. C.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New York: Basil Blackwell.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Blackwell.
- Turner, R. N., Hewstone, M. & Voci, A. (2007). Reducing Explicit and Implicit Outgroup Prejudice Via Direct and Extended Contact: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and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3), 369-388.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33-354.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93-106.
- Williams, D. R., Neighbors, H. W., & Jackson, J. S. (2003). Racial ethnic discrimination and health: Findings from community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 200-208.
- Zúrate, M. A. (2009). Racism in the 21<sup>st</sup> century, In Nelson, T. D. (Ed.)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1 차원고접수 : 2015. 07. 08.

수정원고접수 : 2015. 08. 03.

최종게재결정 : 2015. 08. 21.

##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 to Multicultural Groups in South Korea**

**K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attitude to multicultural groups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273 North Korean defectors completed a questionnaire including attitude toward the multicultural groups including women who immigrated for marriage,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the foreign laborers in South Korea,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Korean identity,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trong effect of sex and age, the effect of contact appeared partially in the factors of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women who immigrated for marriage and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The attitudes toward women who immigrated for marriage and the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were better than foreign laborers. In addition, life satisfaction and Korean identity were found to have a major effect on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groups, negative attitude was affected by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feeling of pity was affected by perception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social distance was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depending on the sub-groups.

*Kyewords: North Korean defector, Multicultural group, Realistic conflict, social discrimination, Korean identity*